

월간 주요 이슈

KBS KEWS(2022. 5. 3.)

한국소비자원 “오래 쓴 바닥매트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”

입력 2022.05.03 (12:59)



충간소음 등을 막기 위한 바닥 매트를 오래 쓰면 안전기준을 넘어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한국소비자원은 1년 이상 사용한 바닥 매트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최대 0.7%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, 안전기준인 0.1%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.

소비자원은 표면이 마모되면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커진다고 어린이집 등에서 친환경 소재 제품을 쓰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.

[사용기간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시험결과]

사용기간 (구입연도)	검사대상 제품 수	0.1% 초과 제품 수	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량(제품 수)	안전기준(0.1%이하)을 초과한 제품의 평균값	요약
4년 이상~5년 미만 (2017년)	3개	3개(100%)	0.20%(2개), 0.70%(1개)	0.37%	구입3년이상경과 8개중 7개 제품이 0.1%초과
3년 이상~4년 미만 (2018년)	5개	4개(80%)	0.20%(3개), 0.50%(1개), 그 외 0.1% 이하(1개)	0.28%	
2년 이상~3년 미만 (2019년)	2개	0개(0%)	0.1% 이하(2개)	-	최근3년이내구입 6개중 1개 제품이 0.1%초과
1년 이상~2년 미만 (2020년)	4개	1개(25%)	0.20%(1개), 그 외 0.1% 이하(3개)	0.20%	

※ 출처 : 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